

파나마 운하를 있게 한 우표 한 장

이 종 탁*

우표 한 장이 역사를 바꾼다. 이렇게 말하면 우표 마니아들이 하는 습관적인 과장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적지 않다. 그 중 하나가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전장 77km의 파나마 운하에 얽힌 이야기다.

얼마전 뉴욕타임스는 파나마 정부가 운하 설립 100년(2014년)을 앞두고 대대적인 확장공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로를 새로 파고 넓혀서 더 많은 배가 지나도록 하는 공사다. 여기서 새삼 확인되는 것은 운하 하면 파나마, 파나마 하면 운하라는 상징이다. 운하를 빼고 나면 파나마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

그런데 파나마의 상징이자 경제 원천인 이 파나마 운하는 모종의 우표가 아니었다면 생겨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파나마 운하가 아니라 니카라과 운하가 탄생할 뻔 했다는 이야기다.

파나마 운하가 없던 19세기 초까지, 미국 배가 국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려면 아메리카 대륙의 최남단 케이프혼으로 빙 돌아가야 했다.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22만km의 뱃길, 두 달이 넘게 걸리는 항해였다. 땅덩어리가 그렇게 생겼으니 어쩔 수 없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대륙의 허리에 배가 지나다니는 수로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절로 나게 돼 있다.

* 경향신문 출판국장, jtlee@kyunghyang.com

그러던 어느날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반(反) 스페인 폭동이 일어났다. 미국은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전함 메인호를 파견했으나, 아바나 항에서 침몰돼 260명이 사망했다. 두 달 뒤인 1898년 4월, 미국은 스페인에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에 나서 필리핀 마닐라 만에 정박 중이던 스페인 함대를 격파하는 등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태평양에 있는 해군을 대서양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운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됐다.

1901년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은 두 대양을 연결하는 운하를 만들겠노라고 공식 발표했다. 문제는 지역이었다. 당시 운하기술은 프랑스가 최고였다. 1880년대 수에즈 운하를 완공한 바 있는 프랑스는 10년 전부터 파나마에 진출해 운하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건설 예정지역에 전염병과 자연재해가 발생해 2만여 명의 희생자를 내고 엄청난 돈만 까먹은 채 손을 든 상태였다. 이런 실패를 눈앞에서 본 미국이니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 하는 것은 당연했다. 파나마 대신 니카라과에 운하를 파자는 게 당시 미국의 대체적인 정서였다.

몸이 단 쪽은 파나마에 이권을 갖고 있던 사업가들이었다. 이들은 미국 의회와 정부를 움직일 로비스트를 고용해 전력 방어에 나섰다. 파나마에 운하를 파면 니카라과보다 수로 길이가 짧은 점, 그동안 프랑스에서 진행해 놓은 게 있어 공사기간이 짧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일리 있는 주장이었지만 미 의회나 정부는 그래도 니카라과로 기울어 있었다.

그런데 미 의회의 최종 의결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1902년 5월 카리브 해의 프랑스령 마르티니크 섬의 펠레이(Pelee) 산에서 3만 명이 목숨을 잃는 19세기 최악의 화산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파나마 이권을 갖고 있던 프랑스의 운하기술자 뷰노 바릴야는 이를 보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바릴야는 뉴욕의 변호사 넬슨 크롬웰을 로비스트로 고용해놓은 상태였다. 크롬웰은 뉴욕 선과 같은 신문에 '니카라과는 화산폭발이 심한 나라'라는 내용의 글을 실었다. 바릴야는 니카라과가 종전에 화산우표를 발행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표 100여 장을 구입했다. 니카라과 모모툼보 화산의 폭발 장면이 그려진 우표였다. 바릴야는 미국의 상원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쓰고 이 우표를 증거물로 넣었다.

“이 나라에 화산폭발이 오죽 자주 일어나면 우표까지 찍어냈겠습니까? 이래도 니카라과를 선

택하시겠습니까?”하는 메시지였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있는 직후 원전 신규건설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면 어땠을까?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미국 의원들은 바릴야가 보낸 화산 우표를 보고 마음을 바꾸었다. 표결에 부친 결과 파나마 루트는 4표 차이로 결정되었고, 크롬웰은 당시 돈으로 80만 달러의 성공보수금을 받았다.

바릴야는 비망록에서 “마지막 한 방의 전투였다. 긴 논쟁이 간단하게 결정됐다. 한 상원의원이 의회에서 ‘화산을 우표 상징물로 담는 나라에서 운하와 같은 대공사를 하는 게 이성적인 것이냐?’고 연설했고, 그것으로 끝이었다”고 적었다.

니카라과로서는 다 된 밥에 코 빠뜨린 셈이 됐다. 별다른 생각 없이 낸 우표 하나가 나라 경제에 이런 치명상을 입힐 줄 누가 알았겠는가? “화산 폭발이 무슨 자랑이라고 그런 우표를 냈나?” 하며 후회해 보아야 이미 앞질러진 물이었다. 니카라과는 그 후에도 운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런 저런 나라들과 운하건설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우표 하나에 나라의 장래가 달라진다는 것을 니카라과 사례는 보여주고 있다.